태권도 김종기 감독이 점찍은 히든카드 | 이화준의 근성에 주목하라

"수비만 해선 금 못따…무조건 앞으로 돌격"

지난 5월 선발전서 만년 2위 탈출
강자들 즐비한 80kg급 '다크호스'
첫 태극마크 동기부여…투지도 굿
목표한 금 6개 외에 깜짝선물 기대

이화준(22·성남시청)은 2018자카르타-팔렘방아시안게임(AG) 태권도 겨루기 대표팀의 다크호스로 손꼽힌다. 대표팀 김종기 감독은 강자들이 즐비한 남자 80kg급에서 이화준이 일을 낼 것으로 내심 기대하고 있다. 목표로 정한 6개의 금메달에 '깜짝 선물'을 더할 주인공으로 생애 첫 태극마크를 단 새내기를 점찍은 것이다. "이화준이 다크호스라고 큰소리를 치는 이유가 다 있다." 김 감독의 목소리에 힘이 느껴졌다.

이화준은 5살 때 처음 도복을 입었다. 그 배경이 흥미롭다. "태권도 체육관에 등록하면 자전거를 선물로 준다고 하길래 시작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잘한 것 같다. 선수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했다." 이렇게 천진난만했던 소년이 17년 뒤 당당한 국가대표가 돼 국민들 앞에서 기량을 뽐낼 기회를 얻은 것이다.



이화준은 2018자카르타-팔렘방아시안게임(AG) 태권도 겨루기 대표팀의 다크호스다. 태극마크 경력은 짧지만, 출중한 기량으로 대표팀에 '깜짝 선물'을 안길 주인공으로 꼽히고 있다. 강산 기자

아픈 과거가 있다. 이화준은 늘 태극마크를 목전에 두고 좌절했다. 계명대 시절부터 그랬다. 스스로도 "항상 마지막 벽 하나를 못 넘었다. 그저 그런 2~3등이었다. '하나만 넘으면 된다'는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털어놓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지난 5월 AG 대표선발전 준결승과 결승에서 이 체급 대표 강자인 박용현(한국가스공사)과 남궁환(한국체대)을 연파하고 자카르타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이화준은 지금도 그 순간을 잊지 못한다. 생애 처음 국가대표에 선발됐는데, 그 무대가 종합국제대회인 AG라는 점이 엄청난 동기부여다. 충분한 실력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고비를 넘지 못했던 아쉬움도 털어냈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가족을 떠올렸다. 이화준이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원동력이다. 그는 "부모님께선 항상 '하고 싶은 대로 하라. 운동을 그만둬도 좋다'고 하셨다. 그런데 한 달간 운동을 안 하니 몸이 간지러워서 '다시 하겠다'고 하면, 그때마다 들어주셨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정말 많았지만, 부모님을 생각하니 절대 그럴 수 없었다"고 밝혔다.

AG는 그에게 특별한 무대다. 동기부여도 확실하다. 금메달을 획득하면 병역 혜택을 받는다. 김 감독은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전지훈련 차 한국을 찾은 러시아 대표선수 막심 크람트코프도 이화준과 연습경기를 하면서 많이 놀라더라. 이화준이 근성에서도 전혀 밀리지 않는다"고 용기를 불어넣었다. 이화준은 "AG에서 성공하기 위한 키워드는 '무조건 앞으로 돌격'이다. 그렇게 해서 반드시 금메달을 목에 걸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그는 다시 한번 "수비만 해선 이길 수 없다. 공격적으로 임하면 된다"는 김 감독의 조언을 떠올렸다.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남자핸드볼 산뜻한 출발
B조 첫 판 파키스탄 완파

2018자카르타-팔렘방아시안게임(AG)에 참가하는 남자 핸드볼 대표팀이 13일(한국시간) 자카르타 포키 찌부부르 스타디움에서 열린 파키스탄과의 예선 B조 1차전에서 47-16 대승을 거뒀다. 18일 대회 개막에 앞서 한국 선수단의 첫 공식경기에 나선 대표팀은 조태훈(7점)과 황도엽(10점)의 맹활약을 앞세워 가볍게 첫 승을 올렸다. 무려 11명의 선수가 골고루 점수를 만들며 대승에 기여했다. 측면 공격이 가장 돋보였다. 전반전 5개의 측면 슈팅에서 무려 4개를 성공시켜 높은 효율을 자랑했다. 후반전 들어 나승도(6점)와 이현식(6점)의 활약까지 더하며 낙승을 거둔 대표팀은 17일 일본과 예선 2차전을 치른다.

AG 여자농구·조정 단일팀 출국

2018자카르타-팔렘방아시안게임에 남북 단일팀으로 참가하는 여자 농구와 조정 대표팀이 13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단일팀은 같은 항공편을 이용했지만 남측과 북측 선수들은 따로 출국 수속을 했다. 북측 선수들이 공항에 도착하기 전 정보기관과 경찰 관계자들이 카운터와 동선을 확보하고 보안 상태를 점검했다. 임원 2명과 함께 출국한 북측 선수단 12명은 모두 흰색 티셔츠에 검은색 긴 바지를 차려입고 중국 스포츠 브랜드 '361°'의 검은색 가방을 메고 있었다.

여자농구 임영희 "금메달 따겠다"

여자 농구 남북 단일팀을 이끄는 이문규 감독은 13일 출국에 앞서 "우리 선수들은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을 목표로 하고 있다.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주장 임영희(아산 우리은행)는 "금메달을 따기 위해 선수들이 손발을 잘 맞췄다"며 "단일팀으로 금메달을 딴다면 더욱 영광스러운 모습이 될 것 같다"고 다짐했다. 여자 농구 단일팀은 남측 선수 9명에 북측 로숙영, 장미경, 김혜연이 합류해 12명의 최종 엔트리를 구성했다. 인도네시아, 대만, 인도, 카자흐스탄과 함께 A조에 편성된 단일팀은 15일 인도네시아와 첫 경기를 치른다.

편집 | 안도영 기자 do02@donga.com

여자핸드볼·탁구·축구선 '남북이 적'

여자농구·조정·카누 단일팀 불구
나머지 종목선 피할 수 없는 경쟁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되는 일은 승부의 세계에서 허다하다. 남과 북 역시 마찬가지다.

남북의 화해 무드에 '스포츠'가 훌륭한 매개 역할을 하고 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에 이어 2018자카르타-팔렘방아시안게임(AG)에서도 여자 농구와 조정, 카누 등의 종목에서 단일팀을 구성해 여타 아시아 국가들과 맞선다. 오랜 갈등의 벽을 허물고 호흡을 함께하는 일이다.

선의의 경쟁자로 만날 일도 많다. 물론 승부 앞에선 한 치의 양보도 있을 수 없다. AG 개막을 나흘 앞둔 14일엔 남북 여자핸드볼 대표팀이 반대 코트에서 서로를 마주한다. 나란히 예선라운드 A그룹에 속해 첫 일전을 벌이게 됐다. 2011년 열린 2012런던올림픽 아시아 예선에서 만난 뒤 7년만의 맞대결이다. 당시 남측이 44-29의 완승을 거둔바 있다. 더욱이 남측 대표팀은 2014인천AG에 이어 대회 2연패를 노린다. 해당 대회에 7번 출전해 6개의 금메달을 수확했을 정도로 강세가 두드러진다.

탁구에선 남북이 다시 라이벌로 돌아간다. 남북은 5월 할름스타드 세계선수권, 7월 코리아오픈에서 차례로 단일팀을 꾸렸다. 코리아오픈 혼합복식에선 남측 장우진(미래에셋대우)과 북측 차효심이 역전승을 일궈 대회 첫 금메달을 합작하기도 했다. 그러나 각자의 국기를 가슴에 달고 출전하는 AG에선 함께 웃을 수 없다. 금메달 사냥 앞에서 우정은 잠시 미뤄둬야 한다.

축구 역시 남북의 치열한 경쟁을 피할 수 없다. 2014인천AG에서도 남북은 남녀 축구에서 금메달을 하나씩 나눠가졌다. 당시 4강에서 맞붙었던 여자축구는 북측이 2-1로 남측을 꺾고 결승에 올라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남측은 동메달에 만족해야했다. 남자축구에선 남측이 연장 승부 끝에 북측에 1-0 승리를 거둔 뒤 챔피언에 등극했다. 아시아 정상급의 실력을 갖춘 남과 북, 남녀 대표팀은 인도네시아에서도 우승으로 가는 길목에서 재회할 가능성이 높다. 서다영 기자 seody3062@donga.com



2018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 참가하는 여자 축구 국가대표팀이 13일 인도네시아에 입성했다. 출국에 앞서 인천국제공항에서 기념촬영을 하며 선전을 다짐하고 있는 대표팀.
인천국제공항 | 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김학범호 합류 손흥민, 캡틴 되다

13일 도착…짐만 푼 뒤 훈련 참가
바레인과 첫경기는 휴식 가능성도

김학범(58) 감독이 이끄는 한국 남자 23세 이하(U-23) 축구대표팀이 드디어 완전체가 됐다.

2018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AG) 금메달에 도전하는 U-23축구대표팀은 11일 자카르타 수카르노하타국제공항을 통해 인도네시아에 입성한 뒤 곧장 조별리그가 벌어지는 반둥으로 이동했다. 장거리 이동에 따른 피로회복을 위해 12일 휴식을 취했고, 13일부터 훈련에 돌입했다.


손흥민

손흥민(26·토트넘)도 13일 대표팀 반둥 캠프에 합류했다. 지난 11일 영국 뉴캐슬에서 열린 2018~2019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뉴캐슬과의 개막전에 교체 출전한 직후 자카르타 행 비행기에 몸을 실은 손흥민은 호텔 도착 후 짐만 푼 뒤 팀 훈련에 참가했다. 비로소 20명의 선수단 전원이 한데 모였고, 김 감독은 손흥민에게 주장을 맡겼다.

당장은 회복이 시급하다. 손흥민은 2018러시아월드컵 이후 2주 가량의 짧은 휴식 후 토트넘에 합류해 미국과 영국을 오가며 프리시즌과 개막전 일정을 소화했고 곧바로 자카르타로 이동했다. 바레인, 말레이시아, 키르기스스탄과 함께 E조에 속한 한국은 15일 반둥 잘락 하루팟 스타디움에서 바레인과 조별리그 1차전을 치르는데, 손흥민은 휴식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김 감독은 조별리그부터 서두르기보다는 선수들 간의 팀워크를 맞춰가는 데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생각이다. 토너먼트에서 최고의 경기력을 발휘하기 위한 복안이다.

남자대표팀과 함께 '동반 금메달'을 노리는 여자축구대표팀은 13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여자대표팀은 자카르타를 경유해 팔렘방에 도착했다. 여자대표팀의 윤덕여(55) 감독은 출국 전 인터뷰를 통해 "좋은 결과를 얻어 응원해 주는 팬들에게 보답하고 싶다. 우리 선수들이 잘해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대만, 몰디브와 A조에 속한 여자대표팀은 16일 팔렘방에서 대만과 조별리그 1차전을 벌인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